

모시기 힘든 '섬마을 선생님'

전남권 도서학교 기피...지역단위 교원임용제 해마다 미달 찾은 교사 교체에 교육질 하락...인센티브 강화 등 대책 시급

전남지역 초등학교 교사들이 장기간 도서지역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섬 마을 학생들의 간절하고도 절박한 소망은 이뤄질 수 있을까.

전남도교육청이 6년 전 도서지역과 일부 군지역 단위 학교의 안정적인 교사수급을 위해 도입한 '지역단위 교원임용제'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면서 애꿎은 학생들만 피해를 입고 있다.

6월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초등학교 지역단위 교원 임용제도를 도입한 이후 선발 예정인원은 모두 79명으로 이중 최종 선발인원은 63.29%인 50명이다. 연도별로는 ▲2012년 10명(선발예정인원) 중 7명(선발인원) ▲2013년 13명()

중 10명() ▲2014년 33명() 중 24명() ▲2015년 8명() 중 3명() ▲지난해 15명() 중 6명() 등이다.

해마다 미달 사태를 겪으면서 애초 도입 취지가 무색해진 셈이다. 이는 도내 도서학교 근무 기피현상이 지속하면서, 특히 수년간 미달 사태가 빚어진 도내 일반 교원임용제 역시 해당 제도를 활성화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 5년간 일반 교원임용제를 통한 선발 예정인원은 모두 2627명으로 이중 최종 선발인원은 87.78%인 2306명이었다. 미달인 일반 교원임용제를 통해 손쉽게 신규발령을 받을 수 있는데, 굳이 이 제도를 통해 8년간 기피지역에서 근무하면서

? 초등학교 지역단위 교원 임용제도 근무 예정이나 학교를 미리 알리고 이를 희망하는 교사를 우선 뽑는 제도. 시·도교육청 단위로 공개경쟁을 통해 신규 교사를 일괄 선발한 뒤 각 학교에 배치하는 기존 임용 절차와 다르다. 이 제도를 통해 임용된 교원은 최소 8년 이상 해당 학교 또는 지역에 근무해야 한다.

교생을 사서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도서지역 근무 기피현상이 심화하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도서지역으로 발령받더라도 최단시간만 근무한 뒤 정주 여건이 더 나은 지역으로 옮기려는 교사들이 늘면서 교사들이 해마다 수시로 바뀌기 때문.

이날 현재 도내 도서지역 학교 수는 초등학교(34개교)·중학교(19개교)·고등학교(8개교) 등 모두 61개교다. 이는 전체 학교 820개교의 7.44%다.

이들 학생은 안정된 교실에서 마음 놓고 공부해야 할 상황에서 잦은 교사 교체 등으로 심리적 안정을 저해받는 것은 물론 일관성 있는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 도서지역 교사 수급 안정화를 위해선 해당 지역 교사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 강화 등 장·단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도서지역에서 근무하는 교사의 경우 2~3년 내에 옮기려고 한다. 학생들 개개인에 대한 파악이 끝날 때쯤 떠나게 되는데, 학부모나 학생만 입장에서 피해일 수밖에 없다"며 "농·산·어촌 정착 교원제도 등 다양한 제도를 도입, 도서지역에 대한 안정적인 교사 수급을 위해 애쓰고 있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장애인 활동법 평등권 위배" 법원 위헌법률심판제청 수용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의 일부 조항이 헌법에서 정한 평등권에 위배할 소지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이정훈)는 "사회복지서비스변경신청 거부 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 A(53)씨가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받아들였다"고 6일 밝혔다.

뇌병변 1급으로 중증장애인이인 A씨는 2016년 9월 광주의 한 자치구에 자신에게 지급되고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의 장기요양급여에서 장애인활동법상의 활동지원급여로 변경해달라고 신청했다가 거절당했다.

해당 자치구는 "재가급여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만큼 장애인활동법에 규정된 자격을 갖추지 못해 장애인 활동지원급여의 지급대상이 아니다"는 통지를 했다.

A씨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규정된 65세 미만의 사람으로서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에 해당해 같은 법 23조 1항 1호에 정해진 장기요양급여(재가급여)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A씨는 장애인활동법 5조 2호·3호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심판 대상 조항에 따르면 65세 미만의 중증장애인으로 장애인활동법상의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에 정해진 노인성 질환을 앓게 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정한 노인 등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활동지원급여의 수급자격을 상실하게 된다"고 밝혔다.

/박진표기자 lucky@



"전두환 회고록 배포 안돼" 5월 단체와 법률대리인 김경호 변호사 등이 6일 오전 광주지법에서 열린 전두환 회고록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심리를 마친 뒤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

전두환 회고록 소송 광주서 한다

대리인 "재판부이송 취소 검토"...지만원 소송도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했다며 5월 단체와 유가족이 제기한 전두환 회고록 관련 소송이 광주에서 열릴 것으로 보인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대리인은 6일 오전 광주지법 행정1부(박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두환 회고록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재판부 이송 신청 취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미 5월 단체와 유가족이 전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본안) 소송이 광주에서 진행 중이어서 가처분 소송의 재판을 서울에서 따로 받을 수 없는 점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단체와 유가족은 전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5·18을 폭동으로 매도하고 북한군이 개입했다고 주장하는 등 왜곡 서술했다며 지난달 12일 가처분 소송을, 지난달 28일 손해배상과 출판 및 배포금지 청구를 냈다.

손해배상은 가처분 소송에 대한 본안 소송으로 아직 공판 기일은 잡히지 않았지만, 양측이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이미 재판이 이뤄지고 있다.

전 전 대통령 측은 "광주는 5·18에 대한 지역 정서가 매우 강하다. 재판 공정성을 위해 지역 연고가 적은 법원에서 판단해

야 한다"며 서울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5월 단체와 유가족은 5·18 역사적 현안이 광주이고 지역 정서에 대한 논리는 근거가 없다며 광주에서 재판이 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5·18 북한 배후설"을 주장하는 지만원(75)씨의 출판물 발행 금지 가처분 소송도 손해배상 소송이 이미 광주지법에서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씨 측이 재판부 이송 신청을 취하하면서 광주에서 이뤄지게 됐다.

법원 관계자는 "이미 본안 소송이 광주에서 진행 중이면 함께 진행되는 가처분 소송도 광주에서 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24 해질녘 19:50
해질녘 18:09 달뜨기 03:51

볼레지수 높아요
흐리고 비가 오겠으나 오후에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도 있겠다.

◇지역별 날씨 (℃)

광주	25/30	보성	가평	23/26	
목포	가평	23/28	순천	가평	24/27
여수	가평	23/26	영광	가평	24/29
나주	가평	24/25	진도	비온 뒤	24/28
완도	비온 뒤	23/29	전주	가평	24/28
구례	가평	23/28	군산	가평	24/28
강진	가평	24/28	남원	가평	23/29
해남	비온 뒤	24/29	홍산도	비온 뒤	22/26
장성	가평	24/28			

◇바다 날씨

목적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남	남서	0.5~1.0	남	남서	0.5~1.5
남부	남	남서	1.0~2.0	남	남서	1.0~2.0
남해	남	남서	0.5~1.0	남	남서	0.5~1.0
서부	남	남서	0.5~1.5	남	남서	0.5~1.5
면해	남	남서	1.0~1.5	남	남서	1.0~1.5

◇생물지수

식중독	경고
자외선	보통
피부질환	보통

◇주간 날씨

8(토)	9(일)	10(월)	11(화)	12(수)	13(목)	14(금)
☁	☁	☁	☁	☁	☁	☁
25/31	25/29	24/30	25/30	24/32	24/32	24/32

비 내리는 주말...곳곳 열대야도

7일 광주·전남은 남해상에서 북상하는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아 흐리고 비가 내리겠다.

기상청은 일부 지역에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으며 당분간 전 해상에 안개가 끼어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조심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7일 광주 최저기온은 25도로 예상돼 열대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며 "높은 기온과 습도 등이 지속하여 볼레지수 등도 높아져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7일 광주·전남은 남해상에서 북상하는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아 흐리고 비가 내리겠다.

기상청은 일부 지역에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으며 당분간 전 해상에 안개가 끼어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조심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7일 광주 최저기온은 25도로 예상돼 열대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며 "높은 기온과 습도 등이 지속하여 볼레지수 등도 높아져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어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6일 밝혔다.

광주지방기상청은 "7일 광주 최저기온은 25도로 예상돼 열대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며 "높은 기온과 습도 등이 지속하여 볼레지수 등도 높아져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어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6일 밝혔다.

/김현영기자 young@kwangju.co.kr

'노출의 계절' 제모제 부작용 주의

크림·스프레이는 피부염, 레이저는 화상 피해

여름철 젊은 층이 제모를 많이 하고 있지만 피부염이나 화상 등 부작용이 빈발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4년 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제모 관련 부작용 사례는 총 152건으로 나타났다. 피부 부작용 사례는 2014년 48건, 2015년 41건, 2016년 39건, 2017년 1~5월 24건 등이다.

제모크림·제모스프레이 등 '제모제' 사용에 따른 부작용 발생이 전체의 36.2%(55건)로 가장 많았으며, 피부부·성형외과 등에서 받은 '레이저 제모 시술' 32.9%(50건), '제모왁스' 17.8%(27건) 등이 뒤를 이었다.

제모제를 사용하던 중에는 화학성분에 의한 '피부염·피부발진'(47.6%·20건)이 주로 생겼다. '레이저 제모' 피해 대부분은 '화상'(77.6%·45건)이었다. '제모왁스'를 피부에 붙였다 떼는 과정에서 피부 박리 등 '피부·피하조직 손상'(56.0%·14건)이 많이 발생했다.

/연합뉴스

※이 제품은 의료기기이며, 사용상의 주의사항과 사용방법을 잘 읽고 사용하십시오. 제조 및 유통 허가: 제16-4507호

TV소리, 말소리가 잘 안들리세요?

TV소리 말소리를 시원하게!

1+1 무료
구입 시 전제품해당

50% 특별대할인

광주·전남 본점 0621430-8900
전북·전주 본점 0631251-4999

대한보청기 DAEHAN HEARING AID www.maxo.co.kr

◆정안본사 02)2248-5600 ◆종로본점 02)743-8100 ◆강남본점 02)542-8500 ◆송파·검정본점 02)420-2090 ◆영등포본점 02)2637-2800 ◆관악본점 02)3285-7600 ◆인천(부평)본점 032)516-2200 ◆수원본점 031)248-7200 ◆안양본점 031)442-2400 ◆분당본점 031)707-5787
◆일산본점 031)917-1100 ◆의정부본점 031)840-2001 ◆구리본점 031)551-1310 ◆안산·시흥본점 031)407-2999 ◆천안·아산본점 041)522-1400 ◆청주본점 043)225-2900 ◆대전본점 042)486-9944 ◆대구본점 053)253-4400 ◆대구서부본점 053)657-3700
◆대구북구(달서)본점 053)311-7900 ◆포항본점 054)231-8070 ◆강원(원주)본점 033)731-2114 ◆부산본점 051)819-0038 ◆부산북구(덕진)본점 051)335-7800 ◆울산본점 052)256-9050 ◆창원·마산본점 055)222-3050 ◆광주·전남본점 062)430-8900 ◆전북(전주)본점 063)251-4999